



이문열·신영우 만화 수호지 10(전10권)

시내암 원작 | 이문열 옮김 | 신영우 각색·그림
반양장 | 46배판 | 180쪽 | 값 9,500원 | 8세부터

ISBN 978-89-6548-119-5 77820, 978-89-94629-14-8(세트)

우리 시대의 거장 이문열과 캐릭터의 마술사 신영우가 만났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고전 문학 『수호지』의 결정판!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이문열·신영우 만화 수호지』 시리즈의 마지막 권인 10권이 비룡소의 만화 브랜드 고릴라박스에서 출간됐다. 대한민국 대표 작가 이문열의 『수호지』를 원작으로 하여, 『키드갱』으로 국내 만화계에 코믹 붐을 일으켰던 신영우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새롭게 그려 냈다. ‘캐릭터의 마술사’라고 불리는 신영우 특유의 재치와 만화적 표현으로 되살아난 108 영웅호걸들은 아이부터 어른까지 쉽고 재미있게 『수호지』라는 고전과 만나게 한다.

『수호지』는 『삼국지연의』, 『서유기』 등과 함께 중국의 ‘사대 기사’로 불리는 고전 명작이다. 이 가운데 서민의 생활상, 다양한 인간상을 그린 가장 서민적인 대중 소설이자 나라의 황포에 대한 서민의 울분과 바람을 담고 있는 민중 문학으로도 평가받는다.

『이문열·신영우 만화 수호지』는 개성만점 주인공들의 특성을 잘 살려 아이들에게 원작 내용을 재미있게 전달한다. 책 뒷부분에는 사진과 삽화가 풍부한 정보 페이지를 두어 아이들이 중국의 역사와 문화, 어렵고 딱딱한 고전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주요 등장인물의 성격과 특징, 비하인드 스토리 등을 실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용기와 지략, 신념 등 우리가 꼭 지녀야 할 교훈을 얻을 수 있게 했다. 이번 10권에서는 전호와 왕경의 반란을 제압하고 강남 지방에서 반란을 일으킨 방납 일당과의 환관 대결을 벌이는 양산박 108 호걸들의 이야기를 다룬다.

● 호방함과 유쾌함이 넘치는 수호지!

신영우는 이문열이 창조한 웅장한 필체의 『수호지』를 호방함이 넘치는 그림으로 재탄생시키고자 인물 하나, 배경 하나마다 정성을 쏟아 작품성을 높였다. 한편 만화의 재미는 놓치지 않아, 지루할 틈이 없다. 『이문열·신영우 만화 수호지』 10권에서는 정의롭고 지혜로운 급시우 송강, 모든 면에서 뛰어난

옥기린 노준의, 양산박의 제갈량 지다성 오용, 양산박 수군 두령 혼강룡 이준 등 개성 넘치는 호걸들의 박진감 넘치는 이야기가 펼쳐진다.

● 어린이도 쉽고 재미있게 읽는 만화 수호지!

『이문열 · 신영우 만화 수호지』는 어른들의 소설을 만화로 각색하여 아이들이 고전 문학에 쉽게 다가설 수 있도록 했다. 흥미 위주의 읽을거리가 아닌 정치, 사회, 문화 등 현대인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지혜가 고스란히 담긴 고전 문학의 첫 번째 단추 역할을 한다. 또한 어려운 용어는 가능한 배제하고, 뜻풀이를 더하는 등 어린이 눈높이에서 그렸기에 누구라도 쉽게 읽을 수 있다. 아이들은 역동적인 그림 속에 펼쳐지는 108 호걸의 삶을 보며, 옳은 일에 앞장서는 정의로움과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불굴의 의지를 배울 수 있다.

● 흥미진진 108 호걸을 따라가면 중국 역사 끝!

『이문열 · 신영우 만화 수호지』에는 중국 역사와 문화가 잘 녹아 있다. 송나라를 중심으로 한 국제 관계, 당시 사회 체제 및 서민들의 생활상, 더 나아가 창과 봉 등 무기 문화까지 다룬다. 이처럼 다양한 중국 역사와 문화를 아이들이 쉽고 자세하게 배울 수 있도록 책 뒷부분에 학습 페이지 ‘아는 만큼 재미있는 수호지’를 실었다. 또한 ‘수호지 호걸 열전’에는 주요 등장인물들의 성격과 특징, 비하인드 스토리 등을 수록하여 보는 재미를 더한다.

● 차례

단주성 싸움
계속되는 승리
다시 이는 구름
새로운 싸움터로
방납을 치러 가다
장순의 죽음
죽어 가는 형제들
뜻을 이루고 각자의 길로
아는 만큼 재미있는 수호지

● 작가 소개

원작 시내암 | 중국 원나라 말에서 명나라 초에 활동했던 작가로, 생애에 관한 정확한 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 지금의 중국 장쑤성에서 태어났으며, 관직에 있다 상사와의 불화로 고향으로 돌아가 글을 썼다고 한다. 원나라 말에 장사성이 일으킨 농민 봉기에 참가했으며, 창작에 열중하면서 『삼국지연의』의 작가 나관중과 친분을 쌓았다. 지은 책으로는 『수호지』, 『삼수평요전』, 『지여』 등이 있다.

윤길 이문열 | 1948년 서울에서 태어나 경북 영양에서 자랐다.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에서 수학했으며 1979년 《동아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했다. 주요 작품으로는 『사람의 아들』, 『젊은날의 초상』, 『황제를 위하여』,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시인』, 『호모 엑세쿠탄스』, 『리투아니아 여인』, 『변경』, 평역소설 『삼국지』, 『수호지』, 『초한지』 등이 있다. 오늘의 작가상, 동인문학상, 이상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그의 작품은 현재 미국, 프랑스 등 전 세계 20여 개국 15개 언어로 번역·출간되고 있다.

각색·그림 신영우 | 1971년에 서울에서 태어나 1994년 『주간 파워』에 『벌거벗은 남자』로 데뷔했다. 『남자 만들기』, 『레드 자켓』, 『키드 갱』, 『더블 캐스팅』, 『서울협객전』 등을 연재했으며, 이 중 갱스터 육아 코미디 『키드 갱』과 쌍둥이 형제의 복수를 그린 『더블 캐스팅』은 각각 TV 드라마와 영화로 만들어졌다. 그는 평범한 상황을 만화적 코드로 풀어내는 발군의 재능과 연출력을 겸비한 대한민국 만화의 자존심이라 일컬어진다. 현재 레진코믹스에 『더블 캐스팅 2014』를 연재하고 있다.

● 상세 이미지





빛을 잃은 108개의 별

송강과 양산박 호걸들은 나라를 이지립히는 역적들을 제압하라는 명을 받았어요. 승리의 깃발이 휘날릴 때도 있었지만, 많은 호걸들이 죽기도 했습니다.

전효의 난

원래 사냥꾼이었던 전효는 썩은 벼슬아치들에게 고통받던 백성들을 부추겨 반란을 일으켰어요. 부패한 관군들은 급격히 세력을 넓혀 가던 전효를 막을 수 없었고, 전효는 스스로 왕이 되어 송나라를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이러한 역적 전효를 물리치기 위해 송강의 군대가 나섰어요. 송강과 양산박 호걸들은 전효 부하들의 요수에 조금 고전하긴 했지만 압도적인 기세로 전효를 몰아쳤고, 큰 피해 없이 전효의 난을 진압할 수 있었습니다.

원경의 난

왕정은 위왕을 가는 죄인이었지만 타고난 배행과 무술 솜씨로 사남들을 쫓아 도적 배의 우두머리가 되었어요. 그는 공물을 갖고 비단 곤룡포를 입으며 왕 행세를 하였고, 왕경의 도적 배는 백성들을 상대로 나쁜 짓을 일삼으며 세력을 키웠어요. 그러자 전효의 난을 제압한 송강에게 곧바로 역적 왕경을 처단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어요. 왕경은 수만 군대를 앞세워 저항했지만 송강과 양산박 호걸들의 드높은 기세와 전략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방납의 난

내가 바로 '수호지, 익당 불환 왕이라'고

나무꾼이었던 방납은 포악한 관리 때문에 피로워 하던 백성들을 모아 난을 일으켰어요. 이에 성공하자 스스로를 왕으로 칭하고 여덟 개 주와 스물다섯 고을을 차지하며 어마어마하게 세력을 키워 갔어요. 나라에 충성하기로 다짐한 송강은 방납을 진압하겠다고 나섰어요. 곳곳에서 크고 작은 전투가 일어났지요. 싸움은 길고 험해서 송강의 많은 장수들이 목숨을 잃고 말았어요. 그러나 적진에 침투해 들어가 방납의 호감을 샀던 소신공 시진이 절정적인 때에 송강을 도와 승리할 수 있었어요. 숲으로 정진없이 도망가던 방납은 노자삼에게 생포되어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빛을 잃은 별들

방납의 난을 진압하면서 많은 호걸들이 세상을 떠났어요. 송강은 호걸들이 목숨을 잃을 때마다 목 놓아 울고, 정성껏 제사를 올렸어요. 하늘 높이 빛나던 108개의 별 중에서 어떤 별이 빛을 잃었는지 살펴보아요.

전명, 서녕, 동평, 정황, 유담, 서진, 선소, 원은, 원소미, 원소, 뇌형, 선수, 배진, 해보, 양안, 호정, 도동일, 함도, 월기, 정환수, 초희, 황정옥, 선장, 공평, 시은, 학사은, 동비, 주홍, 공황, 포옥, 단장주, 후진, 월경, 양일, 호성립, 황송, 이근, 연순, 미린, 디영규, 위정국, 여방, 곡성, 구봉, 진달, 양촌, 옥보사, 이흥, 실명, 이문, 석용, 두천, 정득순, 주연, 이법, 탐룡, 재복, 장영, 손이랑 (59명)	
병들어 죽은 장수	임충, 양지, 장형, 복룡, 양용, 공명, 주귀, 주부, 백순, 서신 (10명)
살아남은 장수	송강, 노준의, 오윤, 권술, 호연직, 최영, 서진, 이윤, 주동, 대룡, 이규, 원소침, 주부, 황신, 손법, 반서, 농진, 박선, 장경, 두홍, 송희, 추운, 채경, 장림, 목은, 손신, 고대수, 인도전, 황보단, 김태건, 소양, 익희 (32명)
송가해 죽이려 한 장수	공순송, 무송, 그리고 출가했다가 죽은 노지심
벼슬이 살아 떠난 장수	연형, 이준, 동휘, 동평